

“처음 시도하는 힙합에 우리 색깔 녹였죠”

온유·민호·키·태민 완전체 타이틀 곡 ‘Don’t Call Me’ 강렬한 남성적인 매력 물씬 이수만 프로듀서 전폭 지원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전투적으로 준비했다.”

확 달라졌다.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방하게 빛나던’ 그룹 사이니가 남성미를 물씬 풍기며 돌아왔다. 2년 6개월간의 ‘군 공백기’를 마치고 새 앨범을 들고 온 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형은 물론 음악적인 역량까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22일 정규 7집 ‘돈트 콜 미’를 선보인 사이니는 “멤버들이 제대하고 복귀하는 만큼 제대로 하고 싶었다”며 “이들 위해 복무 중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앨범은 이들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2018년 발매한 정규 6집 이후 2년 6개월만이라는 점 말고도 멤버 온유, 민호, 키가 군 복무를 끝내고 완전체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도 특별하다.

오랜만에 뭉쳐 활동하게 된 만큼 만감이 교차한 듯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회를 열고 “준비하는 시간조차 행복했다. 사이니로 났 수 있는 시너지를 모두 발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투적으로 준비”했다며 내세운 “전력 투구의 활동”이란 각오가 넘치지 않아 보인다.

2008년 데뷔해 올해 13년 차를 맞이



그룹 사이니가 2년 6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22일 정규 7집 ‘돈트 콜 미’ 발매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회에서 “이번에 확실한 전환점을 맞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한 이들에게는 그동안 몇 번의 티네폐인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2의 사이니’로서 변화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확실하게 전환점을 맞고 싶다”면서 “데뷔부터 여러 차례 장르를 바꾸어 가며 사이니의 색깔을 입힌 곡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강렬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특별한 것 같다. 빨리 대중 앞에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 ‘돈트 콜 미’는 사랑하는 이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후 상처받은 모습을 직설적으로 풀어낸 가사의 힙합 댄스곡으로, 사이니

특유의 청량함과 소년미 대신 강렬함과 멋스러움을 담았다.

이들은 “그동안 시도해본 적 없는 힙합 장르에 우리만의 색깔을 녹인 음악”이라며 “이 정도로 변해야 우리의 음악적 변화가 도드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히스틱리한 가사와 강렬한 멜로디, 정형화하지 않은 스타일링 등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곡을 담은 앨범을 ‘역대급’으로 준비했다고 밝힌 이들은 이어 “사이니를 틀에 갇힌 시선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뜻의 앨범 제목처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새로운 작업진과도 협업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내세운 것처럼 퍼포먼스에 가장 힘을 줬다. 메인 댄서인 태민은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 춤’하는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이들의 연습과정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가 싶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도 사이니의 컴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몇 년간 야궤뿔던 ‘돈트 콜 미’가 사이니의 타이틀곡이 되자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 사실 이 곡은 선배 가수이자 ‘아시아의 별’인 보아가 부를 노래였지만, 이들의 차이가 됐다.

멤버들은 “타이틀곡을 결정했을 때 이수만 선생님께서 저희 손을 들어주셨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듀싱도 해주셨다”며 “우리가 원래 선생님과 많이 소통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일정을 하나만 끝내도 ‘잘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고 말했다.

이정영 기자 annjoy@donga.com

붓물 터진 ‘학폭 미투’ 방송가 대혼란

박혜수·김동희·김소혜·민규·진해성 잇단 의혹에 “사실무근” “법적 대응” 제작진들 “출연자말 믿을 수 밖에”

일부 연예인들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배우 조병규·걸그룹 (여자)아이들 수진 등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배우 박혜수·김동희·세븐틴 민규 등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이 의혹을 적극 부인하는 가운데 그 사실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들이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에까지 사태의 영향이 미치면서 방송가의 혼란도 찾아들지 않고 있다.

●하루에만 5명, ‘폭로 또 폭로’

이들의 학폭 의혹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박혜수는 중학교 동문이라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로부터 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김소혜와 김동희, 세븐틴 민규, KBS 2TV ‘트롯전국제전’ 우승자 진

해성 등에게 각각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들이 차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다.

해당 연예인 측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김소혜의 소속사 에스엔퍼엔터테인먼트와 김동희의 소속사 엔피오엔터테인먼트는 “과거 같은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유포자를 특정해 선처했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해성과 민규 측도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조병규와 수진, 박혜수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수진은 배우 서신애가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와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조병규는 폭로가 계속되자 22일 새벽 “반드시 제 입장을 밝히겠다. 기다려 달라”며 심경을 밝혔다.

●방송 앞둔 프로그램들 ‘난감’

이처럼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학폭 미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배우 박혜수·김동희·김소혜·그룹 세븐틴 민규·트로트가수 진해성(왼쪽부터)이 22일 연달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각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뉴스사·사진제공 | KBS·엔피오엔터테인먼트

점에서 연예계 안팎의 혼란을 더욱 키운다. 논란과 의혹에 휘말린 연예인들이 최근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아오는 중이어서 사실 여부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시선도 높고 있다. 특히 이들을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병규는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진해성은 KBS 2TV ‘전국트롯제전 스페셜 갈라쇼’, 박혜수는 26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금요드라마 ‘디어엔’ 등에 각각 출연하거나 출연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23일 박혜수의 출연이 예정된 KBS 쿨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측

은 출연을 취소했다. 드라마 방영 당일 열리는 온라인 제작발표회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22일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이어진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등으로 사실여부를 가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제작진으로서의 출연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윤정희 딸, 국내 법원서 후견인 신청

프랑스서 후견인 지정된 백진희씨 작년 10월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 윤씨 형제자매 “딸은 절대로 안돼”

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가운데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진희(44)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씨는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윤정희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당했다고 주장해 온 그의 형제자매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진희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은 윤정희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윤정희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일정한 심리 절차를 거쳐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을 대신해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피후견인 보호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윤정희의 재산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두 채와 예금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는 2019년 5월 프랑스 현지 법원으로부터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19년 11월 프랑스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의 형제자매들은 백씨가 국내 법원에도 그 한 달 전 관련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한 측근은 “본질은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다”면서 “딸이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11

연예뉴스 HOT 5

포브스 “BTS 트위터, 美 스타들도 압도”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미국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으로 꼽혔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트위터가 분석해 발표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어 카네이웨스트, 비온세, 드레이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차례로 2위부터 4위를 차지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음악 잡지 롤링스톤 등은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그들보다 더 잘 알려진 많은 스타를 (트위터에서)압도한 것이 인상적이지만, 방탄소년단의 급부상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이수근의 눈치코치’ 제작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데뷔 후 처음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한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22일 “이수근이 나서는 코미디 프로그램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만 보다 세월 다 가는 관객들의 고민을 ‘눈치’의 대가 이수근이 상담하며 쏟아내는 애드립를 담아낸다. 구체적인 방송시점은 미정이다. 이수근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고음불가’와 ‘키컷으면’ 등 코너를 연달아 성공시켰고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오만석, 한예종 연기와 교수 특별 채용



오만석

배우 오만석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와(영상연기)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전임교원 공개 및 특별 채용을 통해 오만석 등을 교수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한예종 측은 이날 “국내외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명성이 높거나 탁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오만석은 2005년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2019년 MBC 연기대상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 등을 받았다.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를 펼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김명수 해병대에 입대



김명수

가수 겸 배우 김명수(29)가 22일 해병대에 현역으로 입대했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이상에 따르면 김명수는 이날 오후 해병대에 입대해 5주간 기초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다. 김명수는 입대 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할 일 잘하고 내년 8월쯤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그때까지 건강 하셨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10년 그룹 인파니트로 데뷔한 그는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밴드’, ‘엄마가 뭐길래’ 등을 통해 연기자 활동을 병행했다. 최근 종영한 KBS 2TV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에서는 암행어사 성이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대만 드라마 ‘상견니’ 국내 리메이크

대만 인기드라마 ‘상견니’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된다. 제작사인 엔피오엔터테인먼트는 22일 “최근 ‘상견니’ 리메이크 관련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판 드라마 제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여자친구가 우연히 선물 받은 휴대용 카세트통을 통해 1998년으로 돌아가 똑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2019년 11월 대만 지상파 중시(CTV) 방영 당시 평균 시청률 4.16%를 기록하는 등 8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다.